환일소식

은 행 나 무

Woon-Hwa Educational Foundation

여름방학호

·발행인 : 박 종 관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hwanil.hs.kr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새로운 환경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자!

학생 샤워실

교실 복도

교무실

전용 자습실

엘리베이터 설치

다목적 칠판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의 많은 시설들이 새 단장을 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의 경우 교실 바닥을 안정감 있는 연회색의 바닥재로 새로 깔았고 교실 뒤편에는 화이트보드를 부착하여 학생들이 함께 수학 문제를 풀거나 토론의 주제를 정할 때 바로 메모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하거나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계단이 많은 교실로 올라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헬스장에서 전용 자습실인 웅비실까지 엘리베이터가 신설되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2학년 교실에도 TV가 설치되어 전 학년 모두 수업 시간에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자료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학생 샤워실도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체육 활동이 끝난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배려해 주었고, 운동 후에도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 리모델링된 시설을 깨끗이 쓰는 것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솔선해야겠다.

- 1학년 성락원 기자 -

김은미 이사장님

아름다운 환일동산이 되길 소망하며...

어느덧 후덥지근한 더위와 함께 2019학년도 1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의 꽃샘추위의 쌀쌀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낯설고 어설펐던 신입생이었던 1학년 학생들도 이제 학교생활이 익숙해져 보입니다. 잽싼 발걸음과 생동감 넘치는 눈빛으로 아~ 이제는 환일인으로 자리잡고, 성장하는구나 하고 느껴 집니다.

운동장의 고함소리와 공을 차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기쁨이 차오릅니다.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나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숲의 푸르름과 길섶에 피어있는 야생화, 산딸기와 함께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을 보면서 우리 환일 학생들의 영혼 속에 사랑과 소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학교에 대한 믿음과 친구들과의 우정이 꽃피는 아름다운 환일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맑음과 순수함을 지니고 세상의 거친 파도를 타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자라나주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루하루 한걸음씩 걸어가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 모든 환일의 학생들 한명 한명 소중한 우리의 아들입니다. 씩씩하게 자라다오.
꿈을 잃지 않는 건각의 아들로 자라나주길 소망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고)김예환 박사님을 기리며
스승의날 기념 식수를 했다.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학교 환경 개선 - 리모델링
2면 스승의 날 행사, 환일고 - 위스콘신대학교 MOU 체결, 이은결 문화체험 행사
3면 신앙생활
4면-5면 명사초청 특강
6면 교내행사
7면 교내행사
8면 특집기사(사격부 활동, 교생실습)
9면 진로
10면 소감문(체육대회, 합창대회)
11면 소감문(교육실습생, 대학탐방, 문화탐방, 등행)
12면 수상, 여름방학 및 2학기 주요일정

학교 소식

스승의 날 행사

2019학년도 스승의 날 행사가 5월 15일 진행되었다. 봄기운 완연한 날씨 속에 시작된 스승의 날 행사는 김은미 이사장님의 훈화 말씀을 통해 스승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생 대표로 학생회 선교 부장 이태호 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진행되었고, 경배와 찬양단, 합창부의 축하 행사, 윤찬영 학생의 축가, 최건혁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 등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통해 스승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카네이션 꽃을 모든 선생님들께 달아드리고, 진심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시간을 통해 사제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스승의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속에서 항상 넘쳐 나기를 바란다.

- 2학년 이지석 기자 -

이은결 THE ILLUSION 문화체험 행사 실시

THE ILLUSION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것,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 그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환일고등학교 431명의 학생이 2019년 5월 23일-24일 양일에 거쳐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이은결 THE ILLUSION> 공연을 관람하였다. 헬리콥터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에서 관객의 호기심을 사로 잡았고 단순한 마술쇼를 넘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며 보여준 공연은 지금까지 살아온 마술사 이은결의 인생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특히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아프리카에 관한 공연은 음악과 함께 현란한 손유희를 통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무대에 나타날 것 같은 사실감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상상속의 환상의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이은결의 꿈과 노력이 전해지는 공연이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 1학년 김민규 기자 -

환일고등학교-위스콘신주립대학 MOU 체결

환일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즉시 위스콘신 대학 입학가능

2019년 5월 7일 학교법인 운화학원 김은미 이사장님과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 정영수 한국 담당 책임자가 참석하여 양교 간에 MOU 체결을 하였다. 양교의 MOU 체결로 학교 생활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의 추천으로 매년 2-3명 정도 위스콘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MOU 체결로 위스콘신 주립대학과 공동협의를 통한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한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 국내 대학만이 아니라 세계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체결이 의미가 있다.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 2학년 복헌준 기자 -

신앙생활

부활절 촛불 예배

2019년 4월 22일 환일고 운동장에서 부활절 촛불예배가 열렸다. 부활절의 뜻을 알아보자면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로부터 삼일 만인 일요일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깊은 부활절을 맞아 환일고의 학생들은 모두 운동장에 나와 촛불을 들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

김철우 전도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해주셨고, 박종관 목사님께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통해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헨델의 메시아' 음악에 맞춰 선교 부장들이 십자가를 들고 입장한 후 김은미 이사장님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촛불이 점화되었다.

모두가 어두운 밤에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경건하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였다.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예배를 마친 뒤 교실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계란을 각자 받고 마무리하였다.

- 2학년 최승정 기자 -

성경퀴즈대회

2019년 7월 5일 제40회 성경 퀴즈 대회가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존 성경 퀴즈 방식은 추첨을 통해 성경 퀴즈 대회의 출전자를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학급별로 1학년은 마태복음, 2학년은 누가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선을 치른 후 단체전과 개인전 출전 학생을 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4교시는 1학년 학생들의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었다.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도 학급의 예선을 거치고 나온 출전자들이어서 학생들이 퀴즈의 정답을 쉽게 맞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1학년 단체전은 1등 1학년 9반, 2등 1학년 1반, 3등 1학년 5반이 차지했고, 개인전의 경우 1반 송민규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 2, 3등을 각각 차지한 5반 박창하 학생, 2반 김경태 학생의 실력 또한 우수했다. 5,6교시는 2학년 학생들의 퀴즈대회로 진행되었다. 작년에 퀴즈 대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1학년과는 또 다른 출전자들의 노련함이 돋보였고 각자 본인의 반을 응원하는 열띤 응원전도 퀴즈 대회의 분위기를 뜨겁게 이끌었다. 2학년 단체전은 1등 2학년 8반, 2등 2학년 4반, 3등 2학년 6반이 차지했고, 개인전의 경우 7반 방주현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 2, 3등은 각각 차지한 9반 서홍욱 학생, 3반 김휘상 학생이 차지했다. 이 대회는 환일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라는 자부심과 전통을 이어주는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 2학년 이지석 기자 -

명사초청 특강

정은옥 건국대 교수님 명사 특강

‘바이오·의료산업에서의 수학의 역할과 비전’

3월27일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신 정은옥 교수님께서 ‘바이오·의료산업에서의 수학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해주셨다. 교수님께서 먼저 의료기술에서 수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셨다. 수학이 들어오면서 적은 연구비로 큰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후 방정식을 이용해서 감염병을 연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수학이 의료에 사용된 예시들을 설명해주셨다. 먼저 수학적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를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셨다. 또 이런 연구들을 할 때 수학자들과 의료 관련 연구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하신다고 하셨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수학이 다른 전염병 퇴치에 기여된 사유와 강의 내용 중 나왔던 감염병 외에 다른 감염병 치료법에 수학이 이용된 사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교수님은 결핵이라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치료를 한 적이 있다고 하셨고, 암 치료법에도 수학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셨다. 이번 명사특강을 통해 수학이 의료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병이라고 하면 주로 의료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이번 명사특강으로 수학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수학을 단순히 일상생활에 쓰이는 계산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료 등 많은 곳에서 좋게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 2학년 방주현 기자 -

서순탁 시립대 총장님 명사특강

대학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

지난 4월 10일 서울 시립대 총장이신 서순탁 박사님의 “대학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 라는 주제로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명사특강이 실시되었다. 박사님은 먼저 현대의 대학의 기능과 의미가 과거의 대학과는 다르게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에 끌려가면 안 되고 자기들이 직접 한 발 먼저 변화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서울 시립 대학교는 빅데이터 연구소를 설치하여 여러 사회 도시 문제들을 진단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UOS 글로벌 캠퍼스라는 해외 캠퍼스를 여러 국가에 설치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대, 기술의 변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꿈은 될 수 없다며 대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을 한다고 말씀해주시고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며 격려해주셨다.

이 특강을 통해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2학년 복헌준 기자 -

명사초청 특강

김덕영 포항공대 교수님 명사특강

‘초고압 물리이야기 :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을까?’

‘흑연으로 다이어몬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김덕영 교수님이 특강을 진행하셨다.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있다. 다이아몬드 역시 탄소로 이루어져있다. 차이점은 탄소의 결합구조일 뿐이다. 그렇다면, 흑연을 초고압으로 압착해 결합구조를 변화시키면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이아몬드만이 아니라 초고압을 가해 상온에서 물을 얼음으로 만들거나, 수소를 금속으로 만드는 등 초고압을 가해서 변형되는 물질과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초고압 물리학이다. 가령 위에서 말한 초고압이 가해진 금속 수소의 경우, 저항이 0인 초전도체가 되며,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진 연료가 된다. 존재가 더 확실히 확인되고, 상용화된다면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다.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물질들이 상상 이상의 것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수님의 특강 내내 흥미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1학년 조승범 기자 -

백신정 고려대 교수님 명사 특강

‘빅 데이터를 깨워라’

요즘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말한다. 6월 5일에 있었던 명사특강에서 백신정 교수님이 빅데이터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 4차 산업 시대가 되어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금 세상에서 빅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여러 상황들을 예측하고 우리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얼마 전 알파고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구글이 지금 더 놀라운 일을 조용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단어를 모아서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 아마존에서는 구매자들이 사이트에서 많이 봤던 물건들을 구매자에게 드론으로 배달하여 구매의사를 물어본다고도 한다. 이로 인해서 훨씬 편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빅데이터로 인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싼 값에 효율적으로 인간의 일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류층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이 나쁜 목적을 갖고 있는다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만 부작용도 많이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뜻 깊은 특강이었다.

- 2학년 정민섭 기자 -

교내행사

고1 체육대회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초여름의 날씨 속에서 환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김은미 이사장님의 멋진 개회사와 함께 체육대회를 시작했다.

종목은 개인달리기, 승부차기, 농구, 족구, 축구, 이어달리기, 자유투가 있었다. 240여명의 학생들은 질서 있게 자리를 이동하며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였다. 농구 결승의 경우 2반과 9반의 경기에서 예선부터 많은 득점을 매 경기마다 냈던 9반이 승리하였고, 특히 점심시간 뒤에 이어진 4반과 6반의 용호상박과 같은 축구경기는 6반의 승리로 돌아 갔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친구들의 개인달리기가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 6반 성락원이 1등을 하였고, 9반 홍우진이 2등, 3반 이석준이 3등을 하였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100m 달리기를 통해 선생님들의 숨겨진 달리기 실력과 릴레이를 보며 선생님과 학생들의 합을 맞출 수 있던 자리였다. 평소 모르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 1학년 성락원 기자 -

고2 체육대회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아침 햇빛과 선선한 바람이 반겨주는 환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학년체육대회가 열렸다. 김은미 이사장님께서는 참가하는 모든 학생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개회사를 읽으시며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유상준 학생이 대표로 선서와 국민체조를 하였다.

첫 경기는 100m 달리기로 체육대회에 분위기를 활성화 하였다. 족구, 자유투, 승부차기 등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1년에 딱 한번 있는 체육대회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달리기 및 릴레이에 참여 하셨다. 학생들은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이기길 바라며 응원을 열심히 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2학년 10반이 족구, 축구 등 많은 상을 가져갔다.

100m 개인 달리기의 경우 3반 송건과 천세원 학생이 1, 2등을 했고 5반 지상욱 학생이 3등을 했다. 전교에서 빠른 학생 2명이 모두 3반이라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환일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는 경쟁과 승부욕이 극대화된 체육대회가 아닌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모두 어울려 의미 있고 따듯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거운 체육대회였다.

- 2학년 이창준 기자 -

고3 체육대회

2019년 6월13일 뜨거운 햇빛 속에서 환일고등학교 3학년 체육대회가 열렸다. 즐거운 국민체조로 개회식을 마치고 100m 달리기, 족구, 자유투, 승부차기 시합을 반마다 돌아가면서 맞붙었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반 구성원 모두가 참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승부차기 우승은 8반이, 자유투는 3반, 족구는 9반, 농구는 5반이 차지했다. 상이 특정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수상하게 되어 많은 학생들이 우승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이런 환일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체육대회 덕분에 협동심 강하고 배려심 넘치는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었다.

개인 100m 달리기의 경우 윤준영, 김진세, 이유원이 각각 1, 2, 3등을 차지하였다. 윤준영 학생이 3학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결과였다.

이렇게 바쁜 오전시간이 끝나고 오후에는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축구 올스타전과 이어달리기가 있었다.

축구 올스타전은 문과팀과 이과팀으로 나누어져서 시작됐다. 각 반에서 축구를 잘한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니 멋진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공격이나 수비 모두 시원시원했다.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와 친한 친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축구관람을 즐겼다. 체육대회의 꽃인 이어달리기는 마지막 순서로 시작됐다. 각 반의 대표 4명이 나와서 하는 이어달리기와 선생님들과 체육부장들의 이어달리기가 있었다. 3학년 전체 학생들은 운동장에 둥글게 모여앉아 친구들이 달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며 응원했다. 말같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참 멋있었고 또 뒤처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이번 체육대회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감회가 새로운 체육대회였다. 넓고 잔디가 깔린 멋진 학교를 다니며 여기에서 체육대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큰 추억이 될 것이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 3학년 이태호 기자 -

교내행사

제 5회 합창 대회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마지막 날 합창대회가 있었다. 푸른 5월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노랫소리는 환일고 전교생이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었다. 벌써 5회를 맞이한 합창대회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3주 동안,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합창대회를 연습하여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나갔다. 시험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친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에 충분했다. 1학년 3반의 '풍문으로 들었소'의 신명 나는 흥, '동문회 합창단'의 선배님들의 공연 그리고 염정훈 선생님의 특별공연은 큰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대상 2학년 1반의 'Queen 메들리'는 이번 합창대회에 하이라이트였다, 마치 진짜 퀸의 무대를 보는 듯한 매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합창 대회 결과 대상은 2학년 1반의 'Queen 메들리', 금상은 1학년 3반의 '풍문으로 들었소'가 차지했다. 우리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 퍼포먼스 상에는 2학년 3반의 '압구정 날나리' 합창곡과 1학년 7반의 '새들처럼' 합창곡 공연에 돌아 갔다. 반주상에는 1학년 강 건 학생과 2학년 송 건 학생, 지휘상에는 1학년 최 혁 학생과 2학년 조주한 학생이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열정을 다해 참여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모두 하나 되어 합창하는 환일고 공연 속에서 자부심과 애교심을 느끼며 하나 되는 대회였다.

- 1학년 허승범 기자 -

이사장님 개회사

사회자

심사 결과 발표

금상 1학년 3반

대상 2학년 1반

동창회 합창단

퍼포먼스상 2학년 3반

문화탐방

2019년 5월10일 환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경복궁으로 문화탐방 및 졸업 사진 촬영을 다녀왔다. 경복궁에는 민속 박물관과 야외 전시장인 '추억의 거리'가 있는데 민속 박물관은 한국인들의 전통 생활문화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고, '추억의 거리'는 과거 1970년대의 이발소, 다방, 의상실 등을 재현해 놓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했다.

옛날 학생 교복을 입고 마치 그 시대의 학생이 되어 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여자 한복을 입고 다소곳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고3이라는 삶의 무게를 잠시 잊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 3학년 이태호 기자 -

북한산 등행

2019년 5월 10일 환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치르고 난 후 등행 훈련 행사를 실시하였다. 중간고사 실시 이후여서 후련한 마음도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치른 시험의 충격은 생각보다 다들 큰 듯했다.

그래도 학교 밖을 나와 북한산이라는 가까운 산에 오르는 것이었지만 같은 산을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1학년 전체 학생들은 하나가 되었다.

등행에 앞서 장미공원에 모여 인원을 점검하고 김철우 전도사님의 기도로 등행 행사가 시작되었다.

학급 친구들끼리 등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는 시간, 단체 사진 촬영 등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고등학교 생활의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이다.

- 1학년 이현규 기자 -

특집기사

환일의 자랑! 사격부!

환일고등학교 사격부는 1972년 창단해서 2019년 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단체 1위, 개인 1위라는 경기 실적을 달성하는 사격 명문고이다.

2019년 올해에도 제 35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4월 19일-4월 26일) 금2, 은2, 동2개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금 2개는 모두 단체전으로 25M 권총 스탠다드 단체 1위(연경욱, 윤서영, 임우진, 박상우), 25M 권총 속사단체 1위(엄재욱, 신지성, 임우진, 윤서영)라는 영예를 안았다.

나주에서 열린 제 49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5월 30일-6월 6일)는 금5, 은2개라는 우수한 실적으로 사격 명문고라는 입지를 자리매김했다.25M 권총 속사단체 1위(윤서영, 김민우, 임우진, 전지수), 25M 스탠다드 권총 단체 1위(김민우, 윤서영, 임우진, 이제준), 25M 권총 단체 1위(윤서영, 김민우, 임우진, 연경욱), 25M 권총 속사 개인 1위 임우진, 25M 권총 개인 1위 윤서영 등 많은 메달을 받았다.

특히 임우진, 윤서영 선수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각각 4개씩 따서 4관왕에 올랐다.

환일고등학교 사격부는 최진성 선생님, 이휘석 사격부 감독님과 조항진, 신현수 코치님 2분이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있고, 3학년 6명, 2학년 8명, 1학년 6명 총 20명의 인원으로 환일고 학생사격선수로 재학중이다. 앞으로 많은 사격 대회에서도 우수한 실적으로 학교의 위상을 빛내리라 여겨진다.

- 3학년 신지성 기자 -

회장기 25m 속사 권총 단체 1위

봉황기 25M 권총 개인 1위 윤서영

봉황기 대회

봉황기 25m 속사 권총 단체 1위

봉황기 25M 권총 속사 개인 1위 임우진

봉황기 대회

교생 실습 실시

환일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교생 선생님들의 교육 실습이 시작되었다.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서 참여한 교육 실습생은 총 11명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영양, 상담의 다양한 과목의 교생 선생님이 환일고에 배정되었다. 특히 교육 실습생 중 5명이 환일고 졸업생이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학생 겸 후배로 여기며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셨다.

4주동안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실무에 관한 연수를 시작으로 수업 참관, 수업 시연, 학생 상담 등 다양한 실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업 시연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끄는 수업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설문 조사를 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이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5명의 교생 선생님이 환일고 졸업생이어서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학교 선배님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학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환일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교생 실습의 소중한 추억이 교직 생활을 하게 될 때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진다.

- 1학년 허승범 기자 -

진로

영재학급 입학식

환일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 운영학교로 2010년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도 2019학년도 환일고등학교 영재학급 입학식이 4월 5일 18:00 시청각실에서 진행되었다. 지도 교사로는 과학분야 이은형선생님, 수학분야 배수화 선생님, 융합분야 김동현 선생님이 수업을 담당해 주시게 되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여 영재 학급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주셨다. 박종관 교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 및 환영사가 있었다. 과학영재(20명), 수학영재(20명), 융합영재(20명) 총 60명의 학생이 영재학급 입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앞으로 영재 학급 학생들은 영재 수업, 영재 캠프, 창의적 산출물 대회 등 많은 수업과 끊임없이 탐구하고 내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영재 학급에서 활동했던 선배님들의 발표를 들으니 새로 시작하는 영재학급 학생들은 다들 앞으로 진행될 영재 학급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듯했다. 수료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영재학급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 1학년 윤준석 기자 -

대학탐방

2019년 5월 22일 환일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건국대 등 여러 대학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탐방을 가게 되었다. 각 학교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안내, 학과에 대한 정보 등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대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대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각자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욱더 생기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이번 대학 탐방을 통해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어떤 곳인지 구체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주관하는 대학탐방뿐 아니라 각자가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시간이 날 때 스스로 학교를 탐방해 보면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리라 여겨진다.

환일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 소중한 체험이었다.

- 2학년 방주현 기자 -

숭실대 탐방

서울대 탐방

2019 전공 설명회 소감문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2019년 5월 22일 교내에서 전공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5개학과,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15개학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질문도 받아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찰행정학부,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등 여러 개의 학과 중에서 각자 3개의 학과를 선정하여 정해진 교실을 이동하며 설명회는 진행이 되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맞춤식 설명회라는 것에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학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내 활동은 많이 할수록 성적관리는 스터디 플래너를 꼭 사용할 것, 스톱워치 사용, 과목별 공부 방법 등 학교 생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려 주셨다.

환일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주신 대학생 분들의 학과 설명과 학교 소개를 들으며, 원하는 진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다방면에서 노력하여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교에서 나온 분들을 보며 대학교를 입학해 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진로에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1학년 김진규 기자 -

소감문

이은결 문화 체험 행사 소감문

1학년 김민규

초반에 '두둥'하는 웅장한 소리와 함께 이은결 마술사가 나타나 보조자들과 함께 여러 개의 위험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했다. 그는 이것을 '마술의 틀에 얽매인 것'이라고 하면서 무대 위의 마술이 보여지는 과정, 그리고 마술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했다. 분위기가 가벼워져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 보였다.

중반에는 이은결의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자아를 '모자'에 비유하며 '모자' 내부에 있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묘사했다. 또 한 번 새 그림을 앵무새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한 후, 이은결은 마술을 하면서 느낀 고뇌를 표현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앵무새를 새 그림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며 그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나타내었다. 후반에는 아프리카 마술 등으로 우리들의 흥미를 증진시킨 뒤, 가장 인상 깊었던 'Finger Ballet'을 하였다. 한 개의 오차도 없이 동작을 완벽히 해내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박수가 나왔다.

이것 외에도 star in bottle, 점점 커지는 눈사람 등의 마술이 인상 깊었고 영원히 인생에 남을 기억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귀에 익숙한 'city of life' 음악을 배경으로 'Illusion of Africa' 공연도 했는데 환상적이었고 신기했다. 빛과 음악이 함께 하면 우리는 신이 나고 흥분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마술과 스토리텔링까지 어루러져 있다면 완벽한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다. 이은결의 'The Illusion' 공연이 그랬다. 처음부터 끝까지 놀람과 환희, 감동, 재미, 감탄 등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Finger Ballet'은 깜박이는 네온 사인을 보는 듯한 착각을 줄 만큼 완벽한 손동작이었다. 이은결 마술사가 혹독한 연습의 결과 손에 혹이 나서 수술을 했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우리가 본 것을 몇 분간의 공연이지만 그것을 위해 그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나도 열정과 끈기를 담아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고1 교내 체육대회 소감문

1학년 성락원

2019년 6월 14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들의 작은 축제인 체육대회가 열렸다. 1학년 친구들의 갈고 닦았던 본인들의 솜씨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었다. 특히 우리 반 6반이 축구 결승전에 올라 갔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 출전하는 나에게 더욱더 기다렸던 날이기도 하다.

좋은 날씨 속에서 이사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체육대회는 시작되었다. 먼저 개인달리기가 있었다. 평소 몰랐던 친구들의 달리기 실력과 내 달리기 실력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두 번째로는 승부차기가 있었는데 반 친구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고 승부를 예측할 수 없어 재미있었다. 특히 상대 진영의 승부차기를 막는 수문장이 된 나는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기대 이상의 결과로 1학년 6반이 승부차기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다.

농구는 2반과 9반이 결승전에 올라 어떤 반이 우승을 할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예선전에서 다른 반과 큰 점수 차이로 이겼던 9반이 우리의 예상처럼 우승을 했다. 특히 이영호라는 친구와 배성열이라는 친구의 활약으로 9반이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체육대회의 꽃인 축구와 릴레이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시작되었다. 축구는 4반과 6반의 치열한 경기 끝에 6반 이승한 친구의 멋진 헤딩골로 6반이 승리하였다. 릴레이는 접전 끝에 9반이 이겼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릴레이가 있었는데 평소 몰랐던 선생님들의 달리기 실력을 알 수 있던 자리였다. 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체육대회였다고 생각한다.

고3 교내 체육대회 소감문

3학년 김동건

원래 7일에 예정되었던 고3 체육대회가 비로 인해 13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맥없이 끊겼고,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러나 막상 체육대회 당일이 되자 마음이 들뜨게 되었고 굉장한 찜통더위 속에서 체육선생님들과 각 반 체육부장들의 일사분란한 인솔로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승부차기, 족구에서 우리 반은 체육중점 반을 만나 고군분투했지만 속절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구를 즐겨 하는 친구들이 많은 우리 반답게 자유투에서만큼은 우승을 챙기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농구 5vs5 결승전이었다. 우리 반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던 것으로 6반, 9반을 차례로 꺾고 힘들게 올라왔기에 꼭 우승을 하고 싶었다. 나 또한 두 번째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는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컸다. 우리 반에는 농구 월클이라고 불리는 원준이, 진우, 준석이가 있었기 때문에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상대는 준결승전에서 대반전을 일으킨 2반이었기에 방심은 금물이었다. 우리 반은 공격보다 수비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수비에 집중을 했다. 상대가 3점 슛을 연거푸 성공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모두가 열심히 한 마음으로 플레이한 덕분에 우승을 할 수 있었다. 경기하면서 문득 알게 된 것은 경기 내내 관중들의 응원이 잘 들린다는 것이었다. 경기장과 관중들의 위치가 가까운 탓도 있겠지만 반 아이들의 응원이 매우 잘 들렸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점심시간 뒤로 이어진 일정은 문과 대 이과 축구 올스타였다. 농구 결승전을 뛰었기에 체력적 부담을 느껴 축구는 전반전 밖에 뛰지 못하였으나 대신에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이과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였다. 햇빛이 뜨겁다고 느껴지는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려준 선수들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대단하게만 느껴졌다. 학창시절의 마지막 체육대회라고 생각하니까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만 같은 고3 체육대회였다.

제 5회 합창대회 소감문

1학년 최혁

6월 10일, 합창대회가 있었다. 우리 반인 일학년 일 반은 동상을 받았고, 나는 지휘상을 받았다. 이제부터 이러한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과정을 말하겠다. 우리 반은 합창대회를 위해 3주 동안을 단합하여 연습하였다. 가장 먼저 해야했던 곡을 정하는 과정은 이러했다. 음악 선생님이신 염정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이 클래식한 곡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며 도라지꽃이라는 합창곡을 소개해주셨다. 우리 반 친구들이 곡을 들어보고는 다들 이 곡을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우리 반은 이곡을 선정하였다. 합창은 베이스, 테너, 테너2 3부로 나눠서 연습하였고, 반주자와 플루트 연주자, 지휘자는 따로 모여 연습을 하였다. 또, 백인성 학생과 한준희 학생은 합창대회의 mc를 맡아 합창 연습과 mc 연습을 병행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다. 우리 반은 이렇듯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갔지만 초반에는 어려움들에 봉착하였다. 도라지꽃이라는 곡이 난이도가 있는 곡인지라 합창부는 아름다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주자는 이경훈 학생이 맡았는데, 평소 피아노에 능숙하지 못했어서 많이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난다. 지휘자는 나였는데 나는 지휘를 배운 경험이 없어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우리 반이였지만, 많은 연습을 하면서 합창부는 결국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어 곡에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이경훈 학생은 능숙하게 반주를 하여 곡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특히 염정훈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 합창단의 템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지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합창대회 당일 날 우리 반은 최선을 다해 무대를 잘 마무리하였고 우리 반의 두 mc도 능숙한 진행으로 활약을 했다. 그 날 무대가 끝나고 나는 우리 반 전체가 단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에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3주 동안의 연습 과정에서는 협력을 통해 난관들을 함께 풀어 나가는 친구들을 보고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부족하였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연습을 하였던 여러 친구들과 염정훈 선생님의 열정, 노력에 자주 감탄했다. 우리 반이 합창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러한 것들이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학년 일반이 앞으로도 이번 경험과 같이 주어진 난관을 긍정적이고 멋지게 풀어 헤쳐 나아가는 자세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학년 조주한

2019년 5월 31일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든 반이 함께하는 제5회 합창대회가 열렸다. 2학년은 두 번째 합창 대회이자 마지막 합창 대회라 아쉬움이 컸다. 약 한 달 정도의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합창 대회는 7시에 시작하였다. 학부모님, 외부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다. 우리 학교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셔서 엄청 감사했다.

처음에는 중학교 본선이 먼저 이루어졌다. 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신나는 공연을 보여주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못지않은 실력으로 모든 반이 화려하고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던 것 같다. 다음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퍼포먼스가 멋진 무대, 진지하고 감동적인 무대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모든 반 전부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던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이번 합창 대회 대상을 받은 2학년 1반 김경신 선생님의 반이었다. 김선우 학생이 프레디 머큐리 분장을 하여 무대를 장악하였다. 가장 독보적이고 호응이 좋은 무대였다. 우리반은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하였는데 나는 지휘자를 맡았다. 무대가 끝날 때쯤 지휘상을 발표하는 데 내 이름이 불려서 깜짝 놀랐다. 다른 반에도 멋진 지휘자가 많았지만 내가 받게 돼서 영광이었고 기분 좋았다. 또한, 동문회 합창단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노아의 방주'라는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엄청 감사하고 정말로 우아하고 멋있는 무대였다. 3학년 음악 전공 선배들께서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고등학생의 실력을 넘어선 노래 실력과 피아노 실력을 보여주어 모든 관객의 시선을 사로 잡을 만큼 멋있는 무대라고 생각한다. 환일고등학교 음악 선생님께서도 특별 무대를 보여주셨다.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셨던 것 같다. 합창 대회가 끝난 후 나는 가진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린 느낌이었다. 모든 무대를 집중해서 봤고 돈을 내고 보러 간 공연만큼 멋있었다.

마지막 합창 대회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다. 나중에 졸업하고도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의 무대를 보고 싶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환일고등학교 이사장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소감문

교육 실습생 소감문

서강대학교 국문과 교육 실습생 이용명

先生이란 먼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 '선생님' 하며 대단한 의미가 담긴 것처럼 '선생님'이란 말을 쓰지만 저는 '선생님'이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일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즐거웠던 기억만큼이나 고통스럽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몰라 이리 저리 방황하고 헤맸던. 그때의 나라면 이렇게 했을텐데 하는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생실습에서는 잠시나마 선생이 되어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제가 겪었던 고민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맞닥뜨린 것은 무관심이라는 벽이었습니다. 제 지난 시절의 경험들과 오랫동안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내용들을 의미 있게 수업에 짜넣었지만 학생들은 자고, 떠들고, 딴짓하며 '난 지금 지루해!'라는 소리를 온몸으로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었지만, 직접 내 수업 때 아이들이 조는 걸 목격했을 때, 그때 선생님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아이들의 무관심에 데이고 나니 다음번 교단에 올라가는 것이 무섭고 '내가 과연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포기했습니다. 꿈으로서 선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선생'이라는 포지션을 버리고 '학생'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 수업이 어땠는지, 뭐가 지루했고,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동료 교생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께도 끊임없이 여쭈면서 수업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수업 지도안을 3번을 갈아엎으며 전날 새벽까지 연습한 결과 마지막 수업 때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수업 내내 대다수가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간의 교생 실습을 하며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의미와 재미 사이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욕심을 부려 의미만으로 가득찬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듣지 않고 재미만으로 가득찬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쓴 감기약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걸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단계적으로 나누고 농담도 뿌리고 내적 동기도 독려하며 고민하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생을 시작한 게 불과 3주전입니다. 하지만 3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만큼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와 의미 사이'라는 공허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체득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탐방 소감문

2학년 이윤재

2019년 5월 22일, 환일고등학교 2학년의 20명 남짓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50분가야 도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는 관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상징으로 꼽히는 '샤' 모양의 입구에 다다르니 학교내부 지도가 있었는데, 에버랜드의 4배 정도의 크기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내부가 정말 넓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돌아다닐 수 있었던 만큼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집합 장소이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공과대학 35동이었습니다. 'Everybody Happy Green Roof' 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공과대학 35동은 빗물로 건물 내부 온도를 조절하고,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를 만들어서 옥상정원에 여러 동아리들의 감자나 다른 식물들을 키우고, 여러 연구를 진행하거나, 재활용품을 이용해 벌집을 만들어 양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기념품점에 갔습니다. 기념품점에는 서울대학교 필통, 샤프, 형광펜, 티셔츠, 텀블러, 간이 스탠드 등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홍보대사 '샤인'에서 학교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샤인' 서울대학교 홍보대사는 'VERITAS LUX MEA' 라고 적혀있는 서울대학교 마크에는 '진리는 나의 빛' 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과 서울대학교의 축제, 동아리, 중앙도서관 등 서울대학교의 여러 볼거리를 홍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일정이 끝나면서 대학탐방이 막을 내렸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 도착하여 힘들 수도 있는 대학탐방이었지만, 보람찬 시간이 되고, 진로에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다음 대학탐방에는 서울대학교 말고도 여러 대학에 탐방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북한산 등행 소감문

1학년 이현규

5월 10일 환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북한산으로 등행을 갔다. 수업이 아니라고 늦는 아이들도,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중간고사를 끝내고 가는 등산은 학생들에게 복잡해진 머리를 가볍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북한산 등행은 처음 보는 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상처받고 고통 받은 친구들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북한산을 가기 전 우리는 9시30분까지 불광역 옆의 장미공원으로 모이기로 했다. 처음에 북한산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높은 산에 놀랐다. 하지만 등산이 아니라 둘레길을 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다. 북한산을 등산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니까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올라가서 간식을 먹는데 몸이 슬슬 피곤해질 즈음에 먹으니 더욱 맛있었던 것 같다. 시험기간에 밖에 자주 나가지도 못했고, 시험기간 동안 잉크향과 종잇장 냄새만 맡았던 우리는 오랜만에 맡은 깨끗한 공기에 숨이 트이는 듯했다. 평소에 등산을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산을 데리고 가니 오랜만에 짙은 녹음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수업할 때는 하지 못한 경험들과 등행을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 기회로 평소에는 서먹했던 친구들과 더 친해졌던 것 같다. 힘들어보였던 등행이었지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앞으로도 더 이런 다양한 학교 행사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경복궁 문화탐방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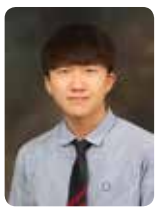
3학년 이태호

5월10일 날짜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따듯한 날, 환일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문화 탐방을 하고 졸업사진을 찍으러 경복궁에 모이기로 했다. 중간고사 준비를 하느라 외출이 오랜만인 나와 친구들은 소풍을 가는 것 같이 들떴다.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벌써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 왔다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다. 정든 환일고등학교를 머지않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친구들과 중간에 만나서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졸업사진을 찍으러 가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많이 보였다. 환일 학생들이 가장 멋지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경복궁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있었다. 추운 3,4월이 지나고 찾아온 화창한 날씨와 교복을 벗고 멋진 옷을 입은 친구들은 느낌이 새로웠다. 반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사진 몇 장을 찍었다. 졸업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이라 그런지 평소 사진 찍기 귀찮아하던 친구들도 자기가 먼저 사진을 찍겠다고 달려들었다. 이런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진을 찍은 우리는 경복궁 탐방을 했다. 경복궁 근처에 살았어도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기술이 돋보였다. 얼마 전 수학시간에 한국의 기와장이 '사이클로이드' 라는 곡선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 더욱 신기했다. 지붕에 물이 차는 것을 막고 물이 빠르게 빠지게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선조의 지혜는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 같다. 경복궁 문화탐방을 다녀와서 공부로 지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었다. 이런 문화탐방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수상자

교외상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상


3학년 이태호

3학년 최유빈

3학년 윤찬영

3학년 이찬용

3학년 김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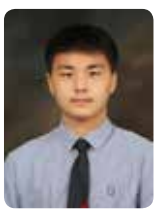
한국기독교학교연맹상

3학년 은서준

3학년 윤하늘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상

3학년 변민재


3학년 배경호

3학년 김광현

3학년 박장호

용산구청장상

3학년 안준영

마포구청장상

3학년 김동건

서울시학생과학 발명품경진대회상

1학년 한준희

전국고등학교 학생 백일장상

2학년 백영현

교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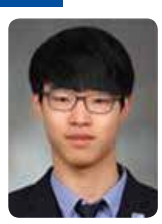
성경 퀴즈 대회 개인전 1위

1학년 송민규

2학년 방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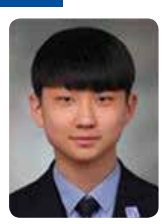
합창 대회 반주상 대상

1학년 강 건


2학년 송 건

합창 대회 지휘상 대상

1학년 최 혁


2학년 조주한

사격부 수상

봉황기 25M 권총 개인 1위

2학년 윤서영

봉황기 25M 권총 속사 개인 1위

3학년 임우진

봉황기 25M 권총 속사단체 1위

2학년 연경욱

2학년 윤서영

2학년 박상우

3학년 임우진

회장기 25M 권총 속사단체 1위

2학년 윤서영

3학년 엄재욱

3학년 신지성

3학년 임우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여름방학 및 2학기 주요일정

7월	18일(목) 여름방학식 18일(목)-19일(금) Leadership summer school 22(월)-8월 6일(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22(월)-25일(목) 영재캠프(수업) 31(월) 1학기 사정회	10월	1일(화)-4일(금) 고3 중간고사 15일(화) 고3 학력평가 18일(금) 봉학마루제 19일(토) 창의적 산출물 대회 23일(수) 명사특강, 학생탐구논문 발표 24일(목) 학교운영위원회	12월	5일(금)-10일(화) 고1,2 기말고사 11일(수)-13일(금) 고1 스키캠프 16일(월) 고3 2학기 사정회, 고1, 2 과학, 수학 창의력 대회 17일(화) 고1 서평 쓰기 대회, 고2 논술왕 대회 20일(금) 성가 경연 대회, 학교 운영 위원회 24일(화) 성탄절 예배 25일(수) 성탄절 26일(목) 겨울 방학식, 2학기 사정회
8월	16일(금) 개학식, 학생탐구논문 제출 23일(금) 학교운영위원회 27일(화)-30일(금) 고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30일(금) 고2 문화탐방				
9월	4일(수) 고1, 2, 3 모의평가 6일(금)-10일(화) 고3 대학 수시원서접수 18일(수) 명사특강 25일(수) 개교기념예배, 가을밤 열린 음악회 26일(목) 개교기념일 27일(화) 학교운영위원회	11월	1일(금) 중3 학부모 설명회 2일(토) 고1, 2 토론왕 대회 13일(수) 수능결의 예배, 수능소집일 14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18일(월)-22일(금) 고3 기말고사 20일(수) 고1, 2 학력평가 26일(화) 학교운영위원회 27일(수)-29일(금) 고3 스키캠프		